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지축은행 226-0180

광주 25/31℃ 목포 25/30℃ 여수 24/29℃

단기 4343년 (음력 7월 2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69호 1판 2010년 9월 3일 금요일

광주비엔날레 개막 공식 개막에 앞서 2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2010 광주비엔날레 프레스 오픈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들이 3000여장의 테디베어 사진으로 구성된 이데사 헨델스의 대작 '테디베어 프로젝트'를 감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2·12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박람회 '황당 수중타워' 취소

1년전 야심차게 추진했다 "바닷물 탁하다" 없던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핵심시설인 'Big-O(Big-Ocean)'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던 '오션타워(Ocean Tower)'설치 계획이 무산됐다. 가시거리가 80㎝에 불과한 여수 앞바다의 탁도(濁度) 때문으로, 조직위가 추진했던 '수중 랜드마크' 및 돌고래 수중전시의 꿈도 깨졌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애초 '오션타워'를 박람회장의 '수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2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전남도 여수박람회지원관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박람회장 내 주요 시설 건립 계획을 변경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최근 고시했다.

변경안의 골자는 박람회장에 조성되는 Big-O(바다전시장·10만5584㎡) 수역 안에 설치키로 했던 오션타워(연면적 2000㎡)를 없애는 대신, 대규모 해상무대가 갖춰진 문화공원(6만9074㎡)을 만들어 뉴미디어쇼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오션타워의 경우 '충분한 수질 확보가 곤란해 전시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철회했다는 게 조직위 입장이다. 바다전시장 예정 수역의 탁도가 가시거리 8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높아 전시연출을 위한 공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직위는 지난해 박람회 조성계획을 확정하면서 바다 전시장을 각종 해조류가 우거진 인공 바다 숲으로 조성하고 관람객들이 수심 4~6m에 만들어진 해중 빌딩 '오션타워'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박람회 조성계획을 확정했었다.

당시 수질이 2~3등급에 불과하고 수심 4.5~9m 바닥에 오염된 퇴적층의 두께가 20~30㎝, 최고 1m가량 쌓여 있어 '죽은 바다'로 여겨진 바다를 살려 토종 돌고래와 야간 발광성 플랑크톤을 방류하고 로봇 물고기까지 전시하는 '거창한'계획도 내놓았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에 맞게 오션타워에서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조직위 구상이었다.

이 야심찬 구상이 고작 1년 만에, 박람회 개최를 불과 2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탁도를 이유로 바뀌게 된 것이다.

지역민들은 플랑크톤이 많은 현지 수역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의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현지 수역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커녕 바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다만 상상한 채 졸속으로 진행했다가 이같은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기아차 임단협 완전타결

기아자동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완전 타결됐다. 기아차 노조는 20년동안 지속돼 온 파업의 고리를 끊었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24년만에 처음으로 무파업의 신기원을 이뤘다. 〈관련기사 8면〉

기아차 노조는 2일 광주와 화성, 소하리 공장별로 지난달 31일 사측과 잠정 합의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대해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3만239명 중 2만8915명(투표율 95.6%)이 참여해 임금 61.8%, 단체협약 58.4%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은 개정 노사관계법에 따라 유급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를 181명에서 21명으로 줄이고, 무급 전임자는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임금 부분에서는 ▲기본급 7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일시금 300%+500만원 지급 ▲신차 성공 및 생산·판매 향상을 위한 회사주식 120주 지급 등이다.

노사는 조만간 소하리공장에서 서영종 사장과 김성락 노조 지부장 등 양측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한편 기아차 임단협이 완전 타결되자 지역 경제계는 크게 환영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환영 성명을 통해 "기아차 노사가 상생협력으로 20년만에 무파업 임단협을 이뤄냈다"며 "지역경제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알림

가을 바람 햇살 그리고 銀輪의 추억

10월31일 '2010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2010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가 오는 10월 31일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자전거 인구 확대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롭게 정비한 이번 코스에서 이 가을 아름다운 남도의 햇살에 빛나는 은륜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10년 10월 31일(일) 오전 8시30분 출발
- 코스 : 광주시청(출발)~ 극락교 삼거리~평동공단 입구 삼거리~동신대학교~삼거교차로~호남대학교(도착)
- 주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 주관 : 광주광역시 사이클연맹
- 문의 : (062)220-0541
- 참가신청 : http : //bike.kjmedia.co.kr

추석자금 14조5천억원 푼다

물가안정대책…제수용품 공급 4배 늘리고 연탄값 동결

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과실류와 무, 배추 등을 중심으로 농협 재배물량을 집중 출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등의 추석 자금난을 돕고자 14조5000억원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추석을 전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해 한국은행 3000억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2000억원, 시중은행 6조9000억원, 중기청 500억원 등 대출 9조4500억원과 보증 5조원 등 모두 14조4500억원을 공급한다.

68만가구가 5222억원을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초과 납부된 소득세 250억원을 영세자영업자 등 35만명에게 추석에 앞서 환급한다. 제수용품 공급을 최대 4배까지 늘리고, 최근 3년간 20~30%씩 올랐던 연탄가격을 올해는 동결했다.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에 지방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반영해 우수 지자체에 행정.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공공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매월 제공한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개시

헌재 "최종심 이전 직무정지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시한까지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는 업무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그의 직무수행 기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연합뉴스

민주 당권주자 6인 공통 설문 ▶4면